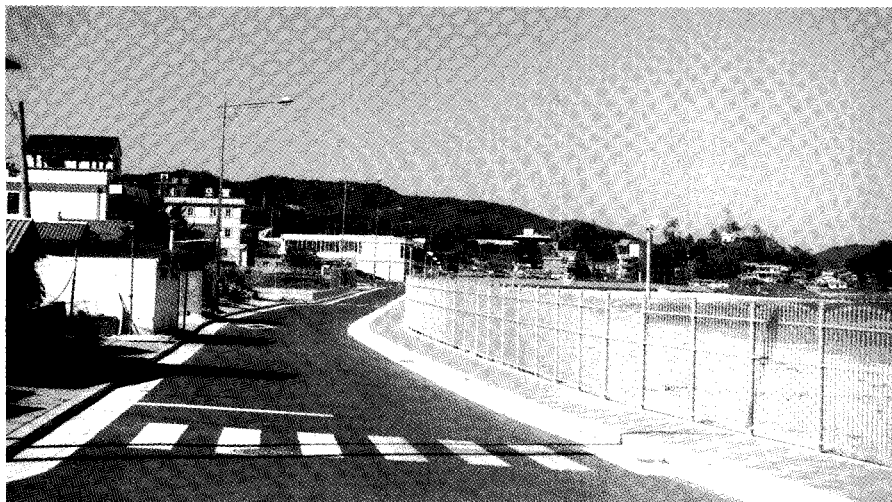


올해 어촌종합개발에 4.23억여원 투자

23개 권역 - 완공위주, 어촌관광 지원 강화



200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 현황

시·도	권역명
인천(1)	옹진 북도·영흥
강원(1)	강릉 강릉동
충남(1)	서천 서천
전남(12)	여수 화정, 여수 남면2, 고흥 동일, 고흥 여자남, 해남 송지1, 무안 월두, 완도 소안, 완도 고금, 진도 남동·세포, 진도 전두, 신안 자은, 신안 안좌
경북(3)	울릉 울릉, 포항 월포, 영덕 대진
경남(4)	통영 한산2, 통영 산양2, 거제 거제만, 남해 고현
제주(1)	북제주 한림서

올해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국가보조 2백 54억2천6백만원, 지방비 1백43억7천6백만원 등 총 4백23억2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속사업 5개 권역, 신규사업 18개 권역 등 총 23개 권역에 4백18억9천7백만원, 기본계획 조사 용역 6개 권역에 3억원, 홍보비용 1억원이 각각 책정되었다.

시·도별 권역별 보조예산은 인천 1개 권역 6억8천5백만원, 강원 1개 권역 8억7천5백만원, 충남 1개 권역에 8억7천5백만원, 전남 12개 권역 1천1백13억2천1백만원, 경북 3개 권역 21억1천3백만원, 경남 4개 권역 66억5천7백만원, 제주 1개 권역 28억원이 배정되었다.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투자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권역내 소규모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어촌관광 부분 사업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차 개발 대상 65개 권역에 대한 시장 변화 등을 조사하여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산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 관광, 문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3년까지 총 8천6백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백34개 권역에 4천5백51원을 투자,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어촌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어가 소득향상과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어촌사랑 캠페인 영상물 방영

어촌사랑 캠페인 영상물 '어촌 사랑 만나요' 가 방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홍보대사인 가수 '바다' 양을 주 모델로 하여 제작된 이 영상물은 60초 동안 승선체험, 갯벌체험, 아름다운 어촌100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어항협회가 공동제작하여 현재 KTX, 광고탑 등에 방영되고 있고 한국어항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